

원효 저작의 성립 순서에 대해서

오카모토 잇페이*
김천학 번역**

- I. 문제의 소개
- II. 원효의 현존 저작과 추론 대상
- III. 저작 B군의 검토
- IV. 저작 A군 고찰
- V. 저작 C군의 고찰
- VI. 가설의 제시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원효(元曉, 617~686) 저작의 성립 순서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데 있다. 원효의 저작 첫 부분에 있는 문수의 증가와 명칭을 통한 방법을 택했다. 중국의 정영사 혜원(523~592)의 주석서, 혹은 법장(643~712)의 일부 저작에서는 문수의 증가에 따라 명칭이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의 발전을 의미하고 문수가 많을수록 후기 저작으로 증명되었다. 이 아이디어를 원효의 저작에도 적용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동안 이러한 연구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이 결국 실패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원효의 저작은 그 서술 형식에서 A~E의 5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A군(3종)은 초기의 저작으로 추정되지만, 형식상 정리가 안 된 문헌도 있고 원효가 저작했는지 의심되는 문헌도 있다. B군(7종)은 원효의 특징적인 서술 형식이 두드러진 저작들이다. C군(3종)은 『동문선』에 수록된 서문들이며, D군(2종)은 완본이 전해지지만 주석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찰 대상에서 보류했다. E군(7종)은 주석서가 아니며 단편만 남아 있어서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는 보류했다.

검토 결과 필자가 제시한 원효 저작의 성립 순서(가설)는 다음과 같다. 『범망경보살계본사기』→

*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강사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

『대승기신론별기』→『해심밀경소서』→『아미타경소』→『양권무량수경소』→『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법화중요』→『대해도 경중요』→『미륵상생경중요』→『열반중요』이다. 나아가 『진역화엄경소서』는 아마도 『대해도경중요』 이전이며, 『본업경소서』는 『해심밀경소서』 이후이다. 그리고 『기신론소』의 저작 순서는 대체로의 추정이다. 이 가운데 『범망경보살계본사기』는 항목명으로 볼 때 원효의 저작이 의문시된다. 『기신론소』의 서술 형식은 다른 원효의 저작과 전혀 다르므로 후세의 편집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신론소』에서 『이장의』를 언급하지만 이것은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의 전후 관계가 계속 문제 되어 왔는데, 단순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역화엄경소서』는 원효 최후의 저작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서에는 후기의 특징이 없다. 마지막으로, 원효의 저작은 대부분 『판비량론』(671년, 원효 55세) 이전이라고 상정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부족하다.

주제어 ● 7세기, 원효, 저작 성립 순서, 門數, 명칭, 판비량론

I. 문제의 소재

본 논문의 목적은 元曉(617~686) 저작의 성립 순서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선 나의 문제의식을 말해두고자 한다. 원효는 불교 역사상 다작한 저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저작은 단간을 포함해 약 22부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원효의 저작에는 55세 때의 저작 『판비량론』(671년)을 제외하면 저술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그의 저작 성립 순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효 사상의 형성과 전개를 논하기 어렵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원효 사상의 위상을 정립하기 어렵다. 원효 개인의 사상을 역사로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저작 중에서 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느 시기의 사상일까? 원효 자신의 사상 형성과 전개에 대한 논의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저작의 성립 순서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효의 생년은 수(582~618)의 붕괴 시기와 거의 같으며, 삼국시대 신라에서 탄생하였다. 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원효 주요 저작의 성립을 『판비량론』 이전(원효 53세)으로 추정하고 있다.¹⁾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원효의 현존 저작은 대부분 통일신라 성립(668년) 이전에 찬술된 셈이 된

1) 그 이유는 『판비량론』에 현장 한역 가운데서 후기에 번역된 『성유식론』이 인용되어 있으며,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 저작을 『판비량론』 이전으로 상정한다. 나는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근거라고 생각한다.

다.²⁾ 즉 원효는 많은 저작을 삼국시대 신라에서 찬술한 셈이다. 삼국시대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수당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의 고구려나 해안을 끼고 위치한 서남부의 백제보다 불교경전을 수입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원효의 저작을 통독할 때 그런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활동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찬술의 장소(강요와 주석)의 수입 상황을 말한다.

원효의 현존 저작 중 12부의 저작은 「門」으로 명명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의 수와 명칭은 저작마다 다르다. 門數로 한정하면 가장 간소한 형식은 『범망경보살계본사기』와 『대승기신론별기』의 2문, 가장 많은 형식은 『미륵상생경중요』의 10문이다. 2문에서 10문으로의 발전은 원효의 저술가로서의 성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 중국 찬술의 장소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국 찬술의 장소도 시대에 따라 항목이 간소한 형식에서 복잡한 형식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淨影寺 慧遠(523~592)의 주석서 성립 순서이다. 혜원의 경우는 『승만의기』에서 시작하여, 「五要」라는 다섯 종류의 항목으로 구성된 『관무량수경소』, 나아가 「六要」라는 여섯 종류의 항목으로 구성된 『온실의기』로 완결된다는 가설을 세웠다.³⁾ 그 후 이 가설을 여러 각도에서 검증하였지만, 가설과 어긋나는 예는 없었으며 결정적 반론도 없었다. 또 다른 예를 보이자면, 法藏(643~712)의 저작 중 4종을 실시하는 문헌들도 마찬가지이다. 4종을 보이는 저작에는 『대승기신론의기』, 『대승법계무차별론소』, 『입능가경심현의』 3종이 있다. 이들 저작에서 4종을 실시하는 부분은 『대승기신론의기』(항목 없음) → 『대승법계무차별론소』(4항목) → 『입능가심현의』(6항목)으로 변화하며, 이것이 그대로 저작 성립순서라는 가설을 세웠다.⁴⁾ 이 가설은 요시즈 요시히데(吉津宜英)가 상정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같이 저작의 성숙도는 내용뿐 아니라, 서술 형식의 성숙도를 함께 포함하여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효의 저작에서 서술 형식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문수의 증가와 그 명칭의 변화를 기준으로 원효 저작의 성립 순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원효의 현존 저작 약 22부 중 12부의 저작을 동일 기준 하에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혜원과 법장의 저작 성립 순서를 추정할 때 채택한 것으로 양자의 저작 성립 순서를 고찰할 때

2) 『삼국유사』 권제4 「義解」 第五의 「元曉不羈」(T49.1006b2-11)에 의하면, 태종 무열왕(재위 654~660)의 명령으로 원효는 환속·대처하게 되었고, 「소성거사」로 자칭한 듯하다. 이때 원효는 38세에서 44세 사이이다. 찬자 호의 문제에 의문이 드는 것은, 그의 저작에 있는 「釋元曉」 등의 범명 표기이다. 환속했는데도 저작에 범명을 사용하는지 의문이다.

3) 岡本一平, 「淨影寺慧遠の著作の前後關係」, 금강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편,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 서울: 씨아이알, 2010; 岡本一平, 「慧光の頓漸圓三種教について」, 『東洋學研究』 53, 2016; 岡本一平, 「淨影寺慧遠の二藏說の形成: 達摩鬱多羅「釋教述義」と慧遠「勝鬘義記」」, 『東洋學研究』 54, 2017 참조.

4) 岡本一平, 「如來藏緣起宗と如來藏思想」, 『東洋學研究』 60(간행예정), 2023 참조.

유효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원효의 저작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지금까지 원효의 저작 성립 순서를 연구할 때 적극적으로 채택된 적이 없으므로 비록 이와 같은 시도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의미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원효의 저작 성립의 순서에 대한 연구는,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⁵⁾가 처음 시도한 이후 후쿠시 지닌(福土慈稔),⁶⁾ 남동신⁷⁾, 이부키 아츠시(伊吹敦)⁸⁾가 다루었다. 이시이 코세이의 방법은 원효의 저작에서 자신의 저술에 대한 언급을 정리하고, 나아가 정관 19년(645)에 귀국하는 玄奘(602~664)의 번역서 인용 상황을 가미한 것이다. 이시이 코세이 이후 후쿠시 지닌, 남동신, 이부키 아츠시도 이 방법론은 답습하고 있다. 각 저술의 문수의 증가와 명칭 변화에 따른 추론은 지금까지 저작 순서 연구에 기준을 둔 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이와 같이 기존과는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시이 코세이의 방법론은 완성도가 높지만, 그 방법으로는 현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이시이 코세이가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는 저작의 성립 순서라기보다는 저작의 참조 관계이다. 그것은 圖式的 형식을 빌어 명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시이 코세이는 원효 자신의 저술 간의 참조 관계와 현장의 번역 경전의 인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두 부류가 실질적으로는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시이 코세이의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저작이 존재한다.

위의 네 가지 가운데 둘째와 셋째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시이 코세이의 원효 저작 순서 추정 방법론의 근간이 되므로, 이 방법의 연장선 상에서 개선할 수는 없다. 또 넷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일단이 있다. 필자의 방법론으로도 15부의 저작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Ⅱ. 원효의 현존 저작과 추론 대상

우선 원효의 저작 가운데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저작 15부를 문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것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문수가 같은 경우는 순서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참고로 찬자명을 병기하였다.

5) 石井公成, 「元曉の教學」, 『華嚴思想の研究』, 東京:春秋社, 1996. 처음 실린 곳: 平川彰編, 『如來藏と大乘起信論』, 東京:春秋社, 1990.

6) 福土慈稔, 『新羅元曉研究』, 東京:大東出版社, 2004.

7) 남동신, 『원효의 발견』, 서울: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8) 伊吹敦, 「元曉の著作の成立時期について」, 『東洋學論叢』 31, 2006.

A군

- (1) 曉公造『梵網經菩薩戒本私記』
兩門分別 1釋題名字 2入文解釋
- (2) 海東沙門元曉撰『大乘起信論別記』
二門 1一者述論大意 2二即依文消息
- (3) 釋元曉撰『起信論疏』
三門 1初標宗體 2次釋題名 3其第三者依文顯義

B군

- (4) 唐海東新羅國沙門元曉述『佛說阿彌陀經疏』
三門分別 1. 初述大意 2. 次釋經宗致 3. 其第三者則入文釋
- (5) 釋元曉撰『無量壽經宗要』
四門 1初述教之大意, 2次簡教之宗致, 3三者舉人分別, 4四者就文解釋.
- (6) 新羅國沙門元曉述『金剛三昧經論』并「序」
四門分別 1. 初述大意 2. 次辨經宗 3. 三釋題名 4. 消文義
- (7) 元曉師撰『法華宗要』
六門分別 1. 初述大意 2. 次辨經宗 3. 三明詮用 4. 四釋題名 5. 五顯教攝 6. 六消文義
- (8) 釋元曉撰『大慧度經宗要』
六門分別 1初述大意 2次顯經宗 3三釋題名 4四明緣起 5五者判教 6六者消文
- (9) 釋元曉撰『彌勒上生經宗要』
十門分別 1初述大意 2次辨宗致 3二藏是非 4三經同異 5五生身處所 6六出世時節 7七二世有無 8八三會增減 9九發心久近 10十證果前後
- (10) 元曉師撰『涅槃宗要』
二門 1一者略述大意 2二者廣開分別(①第一說經因緣門 ②第二辨教宗(總說:涅槃門(六門)·佛性門(六門) ③第三明教體 ④第四明教述)

C군

- (12) 釋元曉『解深密疏序』
문에 관한 정보 없음
- (11) 釋元曉『本業經疏序』『本業經疏』卷下
문에 관한 정보 없음
- (13) 釋元曉『晋譯華嚴經疏序』

문에 관한 정보 없음

D군

(14) 新羅國沙門元曉述『菩薩戒本持犯要記』

略有三門 1一輕重門 2二淺深門 3三明究竟持犯門

(15) 釋元曉撰『二障義』

六門分別 1一釋名義 2二出體相 3三辨功能 4四攝諸門 5五明治斷 6惣決擇

E군

(16) 釋元曉『判比量論』

(17) 『中邊分別論疏』

(18) 『十門和諍論』

(19) 『發心修行章』

(20) 『大乘六情懺悔』

(21) 『彌陀證性偈』

(22) 『遊心安樂道』

A군 3종의 저작은 2문 혹은 3문이지만 항목명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A군의 고찰은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군 7종의 저작은 3문에서 10문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항목명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열반종요』를 제외하면 B군은 비교적 안정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C군 3종의 저작, 『본업경소서』, 『해심밀소서』, 『진역화엄경소서』는 모두 『동문선』에 수록된 서문이며 현재는 『한국불교전서』 제1권에 재수록되어 있다. 이 세 종류의 서문은 「서」라고 명명되어 있으나, 그것은 『동문선』에 수록 시에 추가된 제목으로 보이며 원효의 「종요」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그래서 본래의 형태를 추정하면서 원효의 저작 성립 순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D군 2종의 저작은 문의 수는 확정할 수 있지만, 그 명칭은 A·B군과는 다른 패턴이다. 이 D군부터는 반드시 문수의 순서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E군 6종의 저작은 문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나의 방법론으로는 다룰 수 없다. 또한 E군 『유심안락도』는 원효의 저작이 아니므로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A군을 뒤로 미루고, B군의 고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불확실한 추론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이후의 추론도 틀리기 쉽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D와 E도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론에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9) 『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는 원효의 서문은 이하 6종류이다. 『法華經宗要序』, 『涅槃經宗要序』, 『解深密經疏序』, 『晉譯華嚴經疏序』, 『金剛三昧經論序』, 『本業經疏序』.

Ⅲ. 저작 B군의 검토

1. 『아미타경소』 1권

『아미타경소』는 구마라지바역 『불설아미타경』의 주석서로, 「初述大意」, 「釋經宗致」, 「入文釋」의 삼문 분별로 이루어진다. 저작 B군 중 가장 항목 수가 적은 저작이다.¹⁰⁾ 이하 『아미타경소』의 삼문을 기본 세 항목이라고 가칭하고, 원효의 <대의>, <중>, <입문석>과 표기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려 한다. 그 이유는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저작 B군은 <대의>, <중>, <입문석>의 기본 3항목, 혹은 <대의>와 <입문석>의 앞 2항목을 골자로 서술되어 있으므로(『미륵상생경종요』, 『열반종요』), 원효의 현존 저작 구성을 일반화하는 데 유효한 항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본 세 항목의 첫 번째 <대의>는 해석 대상 문헌의 개요, 두 번째 <중>은 해석 대상 문헌의 주요 사상, 세 번째 <입문석>은 본문의 해석에 해당한다. B군의 저작은 이러한 순서를 준수하고 있으며, 증가한 항목은 제2의 <중>과 제3의 <입문석> 사이에 삽입되거나, <입문석>이 없는 저작에서는 제2의 <중> 뒤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순서에 예외는 없다. 아마도 <대의>, <중>, <입문석>이라는 기본 세 항목을 확립한 것은 현존 저작 중에서는 <아미타경소>일 것이다. 『아미타경소』 이후의 저작에서는 이 기본 세 항목을 골자로 하여 새로운 항목이 부가된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금강삼매경론』, 『법화종요』, 『대혜도경종요』의 삼서에 공통되는 「釋題名」이라는 항목의 성립이다(일반성을 지닌 서술이 필요할 경우는 「석제명」으로 표기함). 「석제명」은 해석 대상 문헌의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항목은 『아미타경소』와 『무량수경종요』에는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석제명」이 항목 명칭으로 없을 뿐이고, 양 문헌의 「대의」 말미에 제명의 해석은 존재한다.¹¹⁾ 즉 『아미타경소』와 『무량수경종요』에서 「석제명」은 아직 항목명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후대의 저작에서 독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양권무량수경종요』 1권

『양권무량수경종요』는 강승개역 『불설무량수경』 2권의 주석서이며, 「初述教之大意」, 「簡經之

10) 元曉 『阿彌陀經疏』, “將釋此經 三門分別. 初述大意 次釋經宗致 其第三者 則入文釋”(T37.348a.10-11, H1.562c 3-4). 본문 가운데의 과문은 「第一述大意」 「第二辨經宗致」 「第三入文解釋」(T37.348a11,b5,c17)이다.

11) 元曉 『阿彌陀經疏』, “言「佛說」者 從金口之所出 千代不刊之教. 「阿彌陀」者 含實德之所立 萬劫無盡之名. 能所合舉以標題目. 故言「佛說阿彌陀經」也”(T37.348b2-5, H1.563a7-11) 『兩卷無量壽經宗要』에 대해서는 뒤의 주 16을 참조.

宗致」, 「舉人分別」, 「就文解釋」의 4문 분별로 구성된 저작이다.¹²⁾ 즉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의 기본적인 세 항목에 「舉人分別(사람에 의해 분별함)」을 추가한 것이다. 『무량수경종요』 「거인분별」은 『무량수경』 하권의 「三聚」와 「四疑」를 고찰한 일절이다. 이것은 『아미타경소』 「釋經宗致」 = <宗>의 후반 부분에 구성되어 있는 설명(=四門)에 상당하며,¹³⁾ 『무량수경종요』에서는 「거인분별」로 독립시킨 항목으로 추정된다. 역으로 「거인분별」을 삭제하고, 『아미타경소』의 삼문분별로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가설의 제시이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하여 『아미타경소』→『무량수경종요』의 순서로 상정하고, 이 두 종류의 문헌을 시기가 근접하는 저작으로 보고자 한다. 이 「거인분별」은 『무량수경종요』 본문에서는 「約人分別」이라고 바뀌어 있지만, 「약인분별」이라는 표현은 정영사 혜원이 자주 사용하는 술어이고, 혜원찬 『無量壽經義疏』에서도 사용되고 있다.¹⁴⁾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의 찬술 시기에 혜원의 저작 몇 가지 종류를 입수했다고 추정된다.¹⁵⁾ 또 『아미타경소』와 같이 『무량수경종요』에도 「석제명」의 항목이 없지만, 제명의 해석은 <대의>의 끝부분에서 볼 수 있다.¹⁶⁾

이상 고찰한 것처럼 저작 B군의 최초의 저작 성립 순서를 『아미타경소』→『무량수경종요』로 상정하고, 이것을 B군 제1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3. 『금강삼매경론』 3권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위경¹⁷⁾)의 주석서이고, 「初述大意」, 「辨經宗」, 「釋題名」, 「消文義」의 4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문수는 『무량수경종요』와 동일하지만, 「석제명」 항목을 독립

12) 元曉 『無量壽經宗要』, “將申兩卷經旨[*原其經旨欲明] 略開四門分別. 初述教之大意 次簡經之宗致 三者舉人分別 四者就文解釋”(T37.125b28-c1, H1.553c3-5) []는 Z본, H본.

13) 元曉 『阿彌陀經疏』, “然入此清淨有其四門. (中略)四 正定聚門. 唯無退者得入此門. 無邪定聚及不定聚. 如『兩卷經』說. 通論極樂世界 具此四門. 今此『經』宗二種清淨 正示第四正定聚門”(T37.348b9-17, H1.563a17-b1)

14) 慧遠 저술의 「約人分別」 용례. 『涅槃義記』(T37.649a4 등), 『維摩義記』(T37.427b17 등), 『無量壽經義疏』(T37.107b6), 『觀無量壽經義疏』(T37.184b28), 『大乘義章』 卷第18 「無上菩提義」(T44.828c7), 卷第19 「三智義」(T44.845b2)

15) 慧遠 이외의 「約人分別」用例. 『大智度論疏』(X46.809a2), 法礪 『四分律疏』(X41.648c4等), 基 『成唯識論述記』(T43.560a28), 勝莊 『梵網經述記』(X38.435a1 등). 元曉 보다 후대의 「約人分別」 용례는 玄一 『無量壽經記』(X22.60c6), 定寶 『四分比丘戒本疏』(T40.467b7)이다.

16) 元曉 『無量壽經宗要』, “但以能說五人之中佛為上首. 依正二報之內長命為主. 故言『佛說無量壽經』 設其一軸不足開心. 若至其三有餘兩掌. 今此『經』者有上有下 無缺無餘 適為掌珍 言之卷上. 故言『佛說無量壽經卷上』”(T37.125c24-27, H1.554a14-18) 여기에는 「제목」에 상당하는 말은 없다.

17) 『金剛三昧經』에 관한 최신 연구는 小野嶋祥雄, 「『金剛三昧經』の成立背景」, 『印度學佛教學研究』 147, 2019; 伊敦軟, 「七世紀後半における中國北地の思想動向」, 『國際禪研究』 5, 2020 참조.

18) 元曉 『金剛三昧經論』, “此經略開四門分別. 初述大意 次辨經宗 三釋題名 四消文義”(T34.961a6-7, H1.604a3-4)

시켰기 때문에 본론은 『무량수경중요』보다도 뒤에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현존 저작 가운데 아마도 처음으로 「석제명」 항목을 독립시키고, 기본 3항목에서 기본 4항목 <대의>, <중>, <석제명>, <입문석>을 확립시킨 저작일 것이다. 이 기본 4항목은 『法華宗要』, 『大慧度經宗要』에 계승된다.

「석제명」을 독립시킨 이유는 『금강삼매경』에서 경전의 제목으로 「攝大乘經」, 「金剛三昧」, 「無量義宗」이라는 세 가지 다른 명칭을 병기하기 때문일 것이다.¹⁹⁾ 다만 원효는 <대의>의 끝부분에서도 3종의 다른 명칭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²⁰⁾ <대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형식은 답습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입문석>에 해당하는 항목을 「소문의」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 「소문」이라는 표기는 『법화중요』, 『대혜도경중요』에도 계승되지만, B군의 제1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다. 智儼(602~668)의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권제3(통칭 『搜玄記』)에 「소문」이란 표현이 1번 사용되기 때문에, 원효가 『수현기』로부터 원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현기』에서는 이 표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거로 삼기에는 약간 의문도 남는다. 또 「소문의」에 해당하는 본문이 「第四科文解釋」으로 명기되는 것도 그 의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²¹⁾ 『금강삼매경론』은 <석제명>을 독립시켜 기본 4항목을 완성시킨 저작이다. 또한 「소문의」라는 항목도 만들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B군 제2기 저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4. 『법화중요』 1권

『법화중요』는 구마라지마(구마라집) 역 『묘법연화경』의 주석서이고, 「初述大意」, 「辨經宗」, 「明詮用」, 「釋題名」, 「顯教攝」, 「消文義」의 6문 분별로 구성되어 있다.²²⁾ 『금강삼매경론』의 기본적인 4항목에 「명전용」과 「현교섭」을 추가하였다.

『법화중요』의 6문 분별에 대해서는 이미 吉藏(549~623)의 『法華玄論』의 六重²³⁾의 영향이 지적되어 있다.²⁴⁾ 그 연구를 참조하면, 확실히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법화중요』와 『법화현론』의 항목

19) 『金剛三昧經』 「總持品第八」(T9.374a28-29).

20) 元曉 『金剛三昧經論』 卷上, “無所不破故名「金剛三昧」 無所不立故名「攝大乘經」 一切義宗無出是二. 是故亦名「無量義宗」 且舉一目以題其首. 故言「金剛三昧經」也”(T34.961a18-21, H1.604b19-c1).

21) 元曉 『金剛三昧經論』 卷上(T34.962c24, H1.607a24). 「科文解釋」 직후에 3분과설(서문, 정설, 유통분)이 있기 때문에, 「科文」이란 말은 반드시 오기·오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문과 해석」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22) 元曉 『法華宗要』, “將欲解釋此經 略開六門分別. <初述大意 次辨經宗 三明詮用 四釋題名 五顯教攝 六消文義>”(T34.870c10-11)

23) 吉藏 『法華玄論』, “玄義有六重 一弘經方法 二大意 三釋名 四立宗 五決疑 六隨文釋義”(T34.361a6-7).

은 「대의」를 제외하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원효의 저작에 특징적인 기본 3항목의 순서, 즉 <대의>, <중>, <입문석>도 『법화현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효는 『법화중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저작 구성을 잘 다듬어 가고 있었지만, 『법화현론』의 6문을 참조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법화중요』의 6문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원효는 『법화중요』를 찬술한 후에 문수를 줄였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법화중요』에서 신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顯教攝」의 주제는 『법화경』이 了義教인가 不了義教인가를 논술하는 항목이다. 『법화중요』의 원문은 「爲是了義爲不了義」이고, 『법화현론』만이 이 문장과 완전히 일치한다.²⁵⁾ 하지만 내용이나 사용하는 항목은 일치하지 않는다. 『법화중요』는 『법화경』이 『解深密經』 三轉法輪說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를 논술하며(제2시 혹은 제3시), 『법화현론』은 5시교판의 제4시에 해당하는가를 논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화중요』가 『법화현론』을 참조했다고 해도, 적어도 항목명은 원효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5. 『대혜도경중요』 1권

『대혜도경중요』는 현장역 『대반야경』의 강요서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현장역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반야경』 전반에 대한 강요서이다. 본서는 「初述大意」, 「次顯經宗」, 「三釋題名」, 「四明緣起」, 「五者判教」, 「六者消文」의 6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문수는 『법화중요』와 동일하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혜도경중요』의 「明緣起」와 『법화중요』의 「明詮用」이다. 이런 점에서 「명연기」 항목의 성립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명연기」라는 항목은 『대품유의』에 있다.²⁷⁾ 그러나 『대혜도경중요』와 『대품유의』를 비교하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혜도경중요』 「명연기」는 붓다의 「說經因緣」(본문)을 해설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대품유의』 「명연기」는 『반야경』 번역의 유래를 해설한다. 따라서 『대품유의』 「명연기」가 항목의 전거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대혜도경중요』 「명연기」의 본문은 「明說經因緣」이다. 이것은 『열반중요』에 계승된다고 생각된다.²⁸⁾ 이것을 중시할 경우 같은 6문이므로 전후를 정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도 『법화중요』 → 『대혜도경중요』의 순서일 것이다.

24) 金炳坤, 『法華宗要』譯注(1), 『立正大學大學院年報』 28, 2011, p.48 참조. 명확한 대응관계가 없는 것은 『法華宗要』 「三明詮用」과 『法華玄論』 「一弘經方法」이다.

25) 元曉 『法華宗要』(T34.874b23-24); 吉藏 『法華玄論』(T34.372a23-24).

26) 元曉 『大慧度經宗要』, “將說此經六門分別. 初述大意 次顯經宗 三釋題名 四明緣起 五者判教 六者消文”(T33.68b22-23, H1.480a3-5)

27) 『대품유의』, “第一釋名 第二辨宗 第三會教 第四明緣起 第五出部儻也”(T33.63b11-12)

28) 『涅槃宗要』(T38.239b29, H1.524b.21)

6. 『미륵상생경중요』

『미륵상생경중요』는 저거경성역 『佛說觀彌勒上生兜率天經』의 강요서이며, 「初述大意」, 「次辨宗旨」, 「三二藏是非」, 「四三經同異」, 「五生身處所」, 「六出世時節」, 「七二世有無」, 「八三會增減」, 「九發心久近」, 「十證果前後」의 십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원효 현존 저작 가운데 가장 문수가 많은 저작이며 구성으로 볼 때 본서를 초기의 저작으로 간주할 근거는 없다.

7. 『열반중요』

『열반중요』는 『大般涅槃經』의 강요서이다. 본서는 「一者略述大意」와 「二者廣開分別」의 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2문을 「第一說經因緣門」, 「第二辨教宗」, 「第三明教體」, 「第四明教迹」의 4문으로 구별하며 「제이변교종」을 「열반」과 「불성」으로 나누고, 각 6문으로 분별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1] 『涅槃宗要』의 과문

一者略述大意
二者廣開分別
第一說經因緣門
第二辨教宗
涅槃之義六門分別
一名義門、二體相門、三通局門、四二滅門、五三事門、六四德門
佛性之義六門分別
一出體門、二因果門、三見性門、四有無門、五三世門、六會通問
第三明教體
第四明教迹

이와 같이 『열반중요』의 구성은 다른 원효의 저작과는 상당히 다르다. [표 1]과 같은 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중시하면, B군의 최초기 저작이다. 그러나 원효 저술 중에 『열반중요』처럼 치밀한 구성의 저작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대의(大意)」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 B군과 같다. 다음으로 「설경인연」이라는 항목은 『대혜도경중요』(목차는 「명연기」, 본문은 「설경인연」)와 동일하다. 따라서 『열반중요』와 『대혜도경중요』의 구성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教宗」, 「教體」, 「教迹」 가운데 「교종」= <중>은 다른 B군 저작들과 공통되지만, 「교체」와 「교적」은 『열반중요』 독자 항목이다. 이로부터 『열반중요』 항목은 크

게 발전되었으며, B군의 마지막 시기의 저작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IV. 저작 A군 고찰

A군의 3종의 저작은 매우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 『梵網經菩薩戒本私記』(『사기』로 약칭)는 위찬설이 있는 저작이다.²⁹⁾ 『기신론별기』와 『기신론소』의 성립 순서는 현재도 논쟁 중이다. 진찬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고찰 대상으로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A군의 세 저작을 원효 저작으로 상정한다.

1.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사기』는 『梵網經菩薩心地品』(위경)의 주석서이고,³⁰⁾ 상권만 현존한다. 구성은 「釋題名字」와 「入文解釋」의 이문 구성이기 때문에, 그 간소한 형태로부터 원효 초기 저작으로 생각된다. 특히 「석제명자」라는 타이틀의 해석을 처음에 두는 원효 저작은 본서뿐이다. 이것을 중시한다면, 『사기』는 현존 최초의 주석서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석제명>이 독립하는 것은 B군의 『금강삼매경론』(4문)이기 때문에, <석제명>과 <입문석>만으로 구성된 『사기』는 원효의 서술 방식과는 거리가 있고, 그의 저술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³¹⁾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사기』를 현존 초기의 저술로 상정하고자 한다.

2. 『대승기신론별기』

『대승기신론별기』는 『대승기신론』의 주석서이며, 『기신론소』와의 전후 관계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별기』는 「一者述論大意」와 「二即依文消息」 2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B군 모두 공통되므로, 『별기』는 <대의>라는 항목을 설정한 초기의 저작일 것이다. 같은 2문이라고 해도 『사기』에는 <대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별기』의 순서로 상정하고자 한다. 『별

29) 木村宣彰, 「菩薩戒本持犯要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8-2, 1980.

30) 元曉 『私記』, “所言「菩薩戒本」者 法喻所置目. 故非正此經目也. 若論是經正目者 應言「梵網經菩薩心地品」(X38.274b11-13). 元曉는 「梵網經菩薩心地品」을 『梵網經』의 정식 제목으로 인정하였고, 「菩薩戒本」은 인정하지 않는다.

31) 木村宣彰, 앞의 논문, 1980은 구성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기』 「대의」의 맨 첫부분은 『해심밀경소서』와 동일하지만,³²⁾ 『해심밀경소서』에는 「대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³³⁾ 『동문선』에 수록된 서문 가운데, 『금강삼매경론서』, 『법화경중요서』, 『열반경중요서』를 조사했다. 모두 「대의」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별기』와 『해심밀경소서』의 전후는 「대의」의 유무로써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머리의 문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별기』와 『해심밀경소서』를 동 시기의 저작으로 상정해둔다.

3. 『기신론소』

『기신론소』는 원효의 대표 저작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구성으로 보자면 본서처럼 부자연스러운 저작이 없다. 왜냐하면 『기신론소』는 「初標宗體」, 「次釋題名」, 「其第三者依文顯義」인 삼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항목명을 알 수 있는 저작 가운데 <대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저작은 『사기』와 『기신론소』뿐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대의>라는 항목이 형성되기 이전, 즉 『별기』보다 앞에 성립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그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다.

『기신론소』의 <題名>이 항목으로 독립한 것은 『금강삼매경론』(4문 분별)부터이며, 『기신론소』는 그것을 먼저 취하고 있는 듯도 하지만, 『기신론소』가 원효 저작 가운데 부자연스러운 구성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비교할 때 <대의>부터 시작하는 『별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다. 『기신론소』가 삼문 구성인데도 B군에 편입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 부자연스러운 구성 때문이다. 아마도 『기신론소』는 『별기』를 토대로 가필 및 수정된 저작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필 및 수정은 어느 단계일까. 추정컨대, 『별기』 이후 『금강삼매경론』 사이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기신론소』는 항목명이 다른 저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의 방법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신론소』에서 인용하는 원효의 저작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방법론을 제안한 것은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이지만 전거가 명기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재조사하였다.

『不增不減疏』³⁴⁾, 『楞伽宗要』³⁵⁾, 『一道章』³⁶⁾은 각각 다른 이유로 본 고찰에서 제외한다. 『기신론소』에서 인용한 「無量壽料簡」과 『무량수경중요』(4문 분별)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³⁷⁾ 필자도 선행 연구에 따라서 「무량수료간」 = 『무량수경중요』의 관계 성립에 문제없다고 생각한다.³⁸⁾ 따라서

32) 『別記』, “言大意者 然夫佛道之爲道也” “堪爾冲玄”(T44.226a13-14).

33) 다음 절의 『解深密經疏序』 항목을 참조 바람.

34) 『起信論疏』, “四中言不離不斷等者 如『不增不減疏』中廣說也”(T44.219b.14-15).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일문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35) 『起信論疏』, “如『楞伽宗要』中說”(T44.208c14-15)

36) 『起信論疏』, “所謂修行十種信心 其相具如一道章說也”(T44.219c26-27)

37) 石井公成, 앞의 책, 1996.

38) 『起信論疏』, “三者 九品往生皆名正定 依勝緣力得不退故 於中委悉 如『無量壽料簡』中說”(T44.225c19-20); 梯

우선 기준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기신론소』는 『양권무량수경종요』 이후, 『금강삼매경론』 이전에 저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기신론소』에는 「二障章」이라는 명칭으로 『二障義』가 언급되지만,³⁹⁾ 이것은 후대의 삽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V. 저작 C군의 고찰

1. 『해심밀경소서』

『해심밀경소서』는 현장역 『해심밀경』의 서문이고, 아마도 원효 『해심밀경소』 3권의 첫부분 혹은 그 「종요」 부분에서 발췌하여 『동문선』에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서』에는 항목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일까 판단하기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그美文으로 추정하자면 「대의」의 全文이라고 추정된다. 게다가 첫부분의 일절인 「夫佛道之爲道也」와 「堪爾冲玄」은 『별기』의 「대의」와 전부 같다. 다른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문장이 없다.⁴⁰⁾ 다만 『해심밀경소서』는 『별기』에 있는 첫부분의 「대의」라는 말이 결락되어 있다. 이 문제는 『별기』 부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해심밀경소서』는 『별기』와 가까운 시기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양 저작 간의 상위는, 본 『서』의 끝부분에는 제목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⁴¹⁾ 『별기』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별기』→『해심밀경소서』의 순서를 추정할 수 있다. <대의>의 끝부분에 제목을 해석하는 것은 원효 저작에서 통례이고, 그것이 없는 『별기』는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소는 원효의 현존 저작 가운데 유일하게 현장의 역서를 대상으로 한 주석서이다. 원효의 현존 저작에 현장역 『해심밀경』에 대해 언급 내지 인용하는 것이 많은 점도 그가 이른 시기부터 『해심밀경』에 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⁴²⁾

信曉 「元曉の淨土思想について-『兩卷無量壽經宗要』を中心として」, 三崎良周編 『日本・中國佛教思想とその展開』, 東京: 山喜房佛書林, 1992, p.186.

39) 『起信論疏』, “此無明相如二障章廣分別也”(T44.215a3-4); 同, “此下第六明二障義顯了門中名爲二障隱密門內名爲二礙. 此義具如二障章說. 今此文中說隱密門”(T44.215c13-15)

40) 『解深密經疏序』의 첫부분 “原夫佛道之爲道也” “堪爾冲玄”(H1.553a3)는 『大乘起信論別記』의 “言大意者然夫佛道之爲道也” “堪爾冲玄”(T44.226a13)와 일치한다.

41) 『解深密經疏序』, “今此經者開發密藏. 所以立題目名解深密經”(H1.553a22-b1).

42) 伊吹敦, 앞의 논문, 2006, pp.145-144(橫).

2. 『본업경소』와 『본업경소서』

『본업경소』는 『菩薩瓔珞本業經』의 주석서이고, 『본업경소서』라고 제목이 붙은 문장(『동문선』 수록)과 본 『소』 권하가 개별적으로 현존한다. 필자의 추론 대상이 되는 것은 『본업경소서』이다. 『본업경소서』는 실질적으로 「대의」에 상당하는 문장이다. 왜냐하면 「서」에 「대의」라는 말이 보이기 때문이다.⁴³⁾ 또 본서의 끝부분에는 「석제명」이란 항목은 없지만, 본경의 제목이 『보살영락본업경』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대의」 가운데 「제목」을 보여주는 형식은 『해심밀경소서』, 『아미타경소』, 『무량수경중요』, 『금강삼매경론』, 『법화중요』, 『미륵상생경중요』와 같으며, 『금강삼매경론』에서 <석제명>이 독립한 후에도 이러한 서술 형태는 남아 있다. 따라서 『본업경소』는 『아미타경소』, 『무량수경중요』, 『미륵상생경중요』와 가까운 시기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3. 『화엄경소』와 『진역화엄경소서』

『화엄경소』는 불타발타라역 『대방광불화엄경』 60권(『60화엄』으로 약칭)의 주석서이며, 『진역화엄경소서』로 제목이 붙은 문장과 권제3이 별도로 전승되어 현존한다.⁴⁴⁾ 義天에 따르면, 본래 8권본 가운데 제5권을 분권하고, 나아가 「중요」를 합책하여 10권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⁴⁵⁾ 즉 의천은 『화엄중요』와 『화엄경소』가 합책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⁴⁶⁾

여기서 필자의 추론 대상은 『진역화엄경소서』이다. 의천의 기록을 감안하면, 이 『서』는 의천이 활동하던 시대까지 『화엄경중요』 1권이라고 불리었고, 『동문선』에 수록되면서 『중요』 가운데 「대의」를 독립시켰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서』의 끝부분에 「대의」와 「제목」이라는 말이 보이기 때문이다.⁴⁷⁾ 「대의」의 끝부분에 「제목」을 추가하는 형식은 『아미타경소』, 『광권무량수경중요』와 『미륵상생경중요』와 같다. 따라서 『진역화엄경소』는 『아미타경소』, 『무량수경중요』 혹은 『미륵상생경중요』와 가까운 시기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43) 『本業經疏序』“斯爲本業之大意也”(H1.498a21-22)

44) 『晋譯華嚴經疏序』는 『東文選』 권83에 수록된 이후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전재(轉載)됨. 『華嚴經疏』卷3(光明覺品)釋은 『大正藏』 85에 수록된 후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전재됨.

45) 『新編諸宗教藏總錄』卷1, “疏十卷<本是八卷今開第五卷并宗要均作十卷也>元曉述”(T55.1166b4)

46) 여기서 의문은 『宗要』 부분과 『華嚴經疏』 부분의 성립 시기다. 왜냐하면, 『宗要』 부분에는 「圓滿無上頓教法輪」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大慧度經宗要』, 『涅槃宗要』에서는 漸頓五時에 의해 경전을 분류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晋譯華嚴經疏序』 부분은 『大慧度經宗要』보다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47) 『晋譯華嚴經疏序』“是大意以標題目. 故言道大方廣佛華嚴經也”(H1.495b19)

Ⅵ. 가설의 제시

우선 필자는 A군부터 C군의 검토 결과, 원효 저작의 성립 순서를 가설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 저작 성립 순서에 관한 가설】

『범망경보살계본사기』

『대승기신론별기』

『해심밀경소서』

『아미타경소』

『양권무량수경소』

『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법화중요』

『대혜도경중요』

『미륵상생경중요』

『열반중요』

※ 『진역화엄경소서』는 아마도 『대혜도경중요』 이전

※ 『본업경소』는 『해심밀경소서』 이후

※ 『기신론소』의 찬술 순서는 대체로 추정이다. 『별기』의 앞 혹은 후세의 편집본일 가능성도 있다.

본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저작 성립 순서의 가설을 세우는 것으로, 원효 저작 속의 자신 저작의 언급은 거의 문제로 삼지 않았다. 『양권무량수경중요』와 『기신론소』의 순서를 다루기 위해 유일하게 문제로 삼았는데, 그것은 대체적인 추정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저술을 언급하는 문헌은 그것뿐으로, 이것으로 성립 순서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저작에 자신의 저술을 언급한 시점에 그 저작이 완성되었다고는 해도, 복수 언급되는 경우에는 그 복수의 저작의 순서가 확정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저작을 언급한 것은 후대의 삽입일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기신론소』에 언급되는 「二障章」이 현행 『二障義』라고 한다면, 그것은 후세의 삽입이 아닐까 추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末那」라는 현장의 역어는 『양권무량수경소』, 『기

신론소』, 『금강삼매경론』, 『판비량론』에서도 확인되지만, 『이장의』에 「말나」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내용도 풍부하다. 그러나 『기신론소』의 「말나」는 용례도 적고 성격도 약간 애매하다. 『별기』에는 「말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볼 때도 『별기』가 『기신론소』보다 뒤에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阿賴耶識」이라는 현장의 역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장의』는 일관되게 「아뢰야식」을 사용하며, 『기신론소』는 구역 「阿梨耶識」을 사용한다.⁴⁸⁾ 『기신론소』 가운데 「이장장」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장의』가 선행하는 문헌임을 보증할 수는 없다. 자신의 저술에서 언급한다고 해도 후세의 삽입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 금후의 과제로서는 내용, 역어에 유의하면서 나머지 DE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DE는 내가 이번에 도입한 방법론으로는 저작의 성립 순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8) 이와 관련하여 『別記』는 「阿賴耶識」을 두 번 사용한다. 그 외 「阿賴耶識」은 『涅槃宗要』, 『判比量論』, 『二障義』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보면, 『起信論疏』에서 언급하였다고 해서 『二障義』와 『兩卷無量壽經疏』가 『起信論疏』보다 선행한다고 결정할 수 없다. 또는 阿賴耶識을 사용하지 않는 『起信論疏』가 『別記』에 선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T : 大正新脩大藏經

X : 新纂續藏經

K : 韓國佛教全書

2. 단행본

福士慈愍, 『新羅元曉研究』, 東京:大東出版社, 2004.

石井公成, 『華嚴思想の研究』 東京:春秋社, 1996.

平川彰編, 『如來藏と大乘起信論』, 東京:春秋社, 1990.

3. 연구 논문

岡本一平, 「淨影寺慧遠の著作の前後關係」, 금강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편,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 서울:씨아이알, 2010.

岡本一平, 「慧光の頓漸圓三種教について」, 『東洋學研究』 53, 2016.

岡本一平, 「淨影寺慧遠の二藏説の形成: 達摩鬱多羅「釋教迹義」と慧遠「勝鬘義記」」, 『東洋學研究』 54, 2017.

金炳坤, 「『法華宗要』譯注(1)」, 『立正大學大學院年報』 28, 2011.

木村宣彰, 「菩薩戒本持犯要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8-2, 1980.

小野嶋祥雄, 「『金剛三昧經』の成立背景」, 『印度學佛教學研究』 147, 2019.

伊吹敦, 「元曉の著作の成立時期について」, 『東洋學論叢』 31, 2006.

伊吹敦, 「七世紀後半における中國北地の思想動向」, 『國際禪研究』 5, 2020.

梯信曉, 「元曉の淨土思想について—『兩卷無量壽經宗要』を中心として」, 三崎良周編, 『日本・中國佛敎思想とその展開』, 東京:山喜房佛書林, 1992.

■ 논문투고일 : 2022. 10. 31. ■ 심사완료일 : 2022. 11. 27. ■ 게재확정일 : 2022. 11. 29.